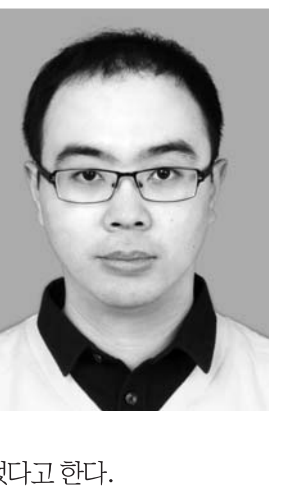
“조선대 꼼꼼한 가르침에 中 국가 공무원 꿈 이뤄”

‘바늘 구멍’ 중국 공무원 합격한 조선대 유학생 정명헌 씨

2014년 무역학과 편입 석·박사 취득…“한국문화 배울점 많아”



조선대학교에서 8년 동안 공부한 외국인 유학생 정명헌(鄭明軒·중국 절강성 온주시·사진)씨가 중국 국가고시(國考·궈카오)에서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 국가공무원으로 선발됐다.

중국 국가고시는 매년 100만여명이 지원하는 데 비해 선발 인원은 1~2만명에 불과하다. 경쟁률은 직렬에 따라 수백에서 수천 대 1에 달하며, 지난 7월 치러진 이번 시험에서도 2차 필기시험에서만 경쟁률이 약 100대 1이 넘었다.

정씨는 중국 무한정법대학(武漢政法大學)을 다니다 지난 2014년 조선대 무역학과 3학년으로 편입했다. 2013년 당시 광주시와 절강성 온주시가 우호도시 협약을 맺고, 같은 해 조선대 중국사무소가 온주시에 개설돼 조선대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후 광주에서 8년을 공부한 그는 지난 2월 조선대 대학원 FTA비지니스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무역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씨는 유학 시절에 학과 공부에 열중하면서도 틈틈이 한국문화와 글쓰기 배우기를 즐긴 덕에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정씨는 “한국어를 취미로 생각하고 배웠다. 후배 유학생들도 한국어 공부를 부담이 되는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취미라고 생각하고 배우면 실력이 크게 늘 것”이라며 “한국문화에서도 윗사람을 존경하는 문화와 효(孝)문화 등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석·박사 지도교수님의 꼼꼼한 논문 지도와 국제협력팀 직원들의 관심과 배려로 조선대학교에서 박사과정까지 무사히 마치고 중국에서 국가공무원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었다”면서 “조선대학교에 감사하다. 다른 유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 원하는 바를 꼭 성취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방송인 김미화씨

경기 안산시 산하 안산문화재단은 방송인 김미화〈사진〉씨가 다음달 1일 제5대 재단 대표이사에 취임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재단은 김씨가 지난달 10일 공고된 대표이사 공개모집에 응모, 서류심사와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20일 최종 합격했다고 덧붙였다. 재단 대표이사 임기는 2년이다.

안산시장이 이사장을 맡는 안산문화재단은 2013년 1월 출범했으며, 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 시행, 문화시설 운영, 다양한 지역축제 개최 등을 담당한다. 정규 직원은 60명, 올해 예산은 137억원이다.

재단 관계자는 “김씨는 신원조회 등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이사장인 안산시장의 임명 절차를 거쳐 공식 취임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시아문화원 임원 경영평가성과급 10% 기부 … 코로나 위기 동참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이하 문화원)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동참을 위해 임원 경영평가성과급 10%를 반납해 기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간 합의를 통해 전 직원 경영평가성과급 1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 코로나19 및 수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돕기에 힘을 보탰다. 이에 앞서 문화원 임직원은 코로나 위기 극복 성금모금 활동을 비롯해 단체헌혈 실시, 유휴장비 사회적기업 기부 등 지역민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이기표 문화원장은 “이번 경영평가성과급의 일부 온누리상품권 지급은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라며 “노사가 상호 협력하여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원로 출판인 김낙준 금성출판 회장 별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과 ‘책의 해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원로 출판인 김낙준 금성출판사 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1932년 경북 의성에서 태어난 고인은 안계농업고를 졸업하고 1950년 대구문화서점을 경영했으며 1965년 금성출판사를 설립한 이래 회장으로 재직해 왔다.

고인은 출판의 기반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시절에 ‘어린이 첫걸음’이라는 아동 도서 출간을 시작으로 학생백과, 위인전기, 세계명작은 물론 교과서, 교양서 등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위한 다양한 책을 펴내 왔다.

또 1993년 ‘책의 해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독서 진흥을 위한 여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제40대와 41대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을 지내는 등 출판계 활동도 활발히 펼쳐 ‘출판계의 산 역사’로 불린다.

고인은 금성문화재단을 설립해 연구,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도서 기증과 기금 마련에도 앞장서 왔다.

1985년 국무총리 표창, 1989년 옥관문화훈장을 받는 등 다수의 상과 표창, 훈장을 받았다. /연합뉴스

MG새마을금고 광주전남협, 구례군에 수재의연금 전달

MG새마을금고 광주전남협의회(회장 안세찬)와 실무책임자협의회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구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2400만원을 전달했다.

〈MG새마을금고 광주전남협의회 제공〉

㈜더꿈씨케이센터, 이재민 돕기 사랑의 만두 기부

㈜더꿈씨케이센터가 최근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북촌손만두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흥석)에 전달했다. 기부받은 사랑의 만두 1040개는 적십자광주봉사관을 통해 광주 지역 이재민 52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신협 광주전남지역본부, 수재민에 전기밥솥 전달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문규·가운데)는 지난 24일 구례군과 곡성군을 방문, 수재민을 위해 각각 750만원 상당 전기밥솥을 기부했다.

〈신협 광주전남본부 제공〉

TV프로그램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엄마가 바람났다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5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기막힌 유산(재) 40 지구촌 뉴스	45 내가 가장 예뻤을 때(재) 1~2부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공감 스페셜(재) 55 UHD 숨터	10 출사표(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스페셜 45 스푸키즈 3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치치핑핑 50 뽀뽀뽀 친구친구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백튜더뮤직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20 영상앨범 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팔도밥상 50 우리, 다시 호프 프롬 코리아			00 뉴스브리핑
3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제보자들(재)	00 기분 좋은 날(재)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재)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동물의 왕국	00 신비아파트:고스트볼 X의 탄생 30 꿀잼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20 액션캠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20 오매! 전라도	00 백종원의 골목식당(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다큐멘터리 3일	50 위험한 약속	20 찬란한 내 인생 55 MBC 뉴스데스크 1~2부	00 남도애 가요 스페셜
8	30 기막힌 유산	30 제보자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1~2부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특선다큐 일곱 개의 대륙, 하나의 지구-7부 아프리카	30 내가 가장 예뻤을 때 1~2부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글로벌 다큐멘터리	4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스페셜 1~2부	50 라디오스타 1~2부	00 앨리스:더 비기닝(재)
11	15 팔도밥상 스페셜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4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백종원의 골목식당 1~2부
12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25 콘텐츠 박물관 스페셜 건강한 집 세계의 에코하우스	10 나이트라인 40 내고향 전파(재)

EBS1

07:00 꼬마버스 타요
07:15 출동! 슈퍼윙스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최고다! 호기심 딱지
08:00 딩동댕 유치원
08:30 고고다이노 우리동네 공룡
08:45 위인극장 리턴즈 〈세종대왕〉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2:25 지식채널e
12:30 클래스 e
13:00 EBS 다큐프라임(재)
13:55 EBS 초대석
-전제덕 하모니카 연주자
14:45 미니특공대X
15:45 머털도사
16:15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30 딩동댕 유치원
16:50 해요와 해요
17:00 EBS 뉴스
17:20 야옹멍멍 귀여워2
17:30 로빈 후드
17:45 히어로 써클
18:00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
19:00 위 베어 베어스:곰브라더스
19:30 자이언트 펭TV
19: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재)
20:35 경이로운 지구
〈세렝게티의 사냥꾼들 2〉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구석구석 알프스-동화같은 하루〉
21:30 한국기행
〈여름 별미를 찾아서 3부
추억이 쌓이 ‘면’〉
21:50 EBS 다큐프라임
〈생존의 비밀 3부-사라지는 얼음왕국〉
22:45 극한직업
〈나만의 작은 바다 만들기-수조조경〉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어느 명품 브랜드의 기사회생 전략〉
23:50 클래스 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6일(음 7월 8일 辛丑) ☎010-9790-8237

子 36년생 혹독한 겨울 뒤에 화사한 봄날이 찾아드는 이치이다. 48년생 실효적인 가치를 구하자. 60년생 지금이라도 실행해야 한다. 72년생 처음에 단추를 잘못 꿴다면 끝까지 속썩일 것이니 주의하라. 84년생 상대적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라. 96년생 심사숙고 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07, 97

丑 37년생 객관성을 유지하고 상응하는 관계 파악에 능해야 한다. 49년생 상황 윤리에 어긋난다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61년생 사방이 온통 오리무중이니 미혹에 빠질까 두렵다. 73년생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85년생 가면 갈수록 점점 수월해질 것이다. 97년생 내버려 두면 큰일 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8, 64

寅 38년생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유리하다. 50년생 사태는 불시에 발생하는 법이니 긴장을 늦추지 말자. 62년생 판세를 확실히 뒤집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74년생 최근의 것이 가장 유력하다. 86년생 실현 가능한 원인 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 98년생 누적된 것을 해소해 줘야만 다음 과정으로 넘어 간다. 행운의 숫자 : 52, 57

卯 39년생 결정되었다면 신속하게 실행해야 하느니라. 51년생 협조를 가장해서 자신의 실속을 채우려는 이가 보인다. 63년생 불리한 조건이라도 수용하는 편이 낫다. 75년생 모면하려고만 한다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니 근본원인을 파헤쳐야 할 것이다. 87년생 돈이 관건이다. 99년생 대응하는 방법과 강도에 따라 천차만별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9, 79

辰 40년생 돈을 보고 도리깨침을 흘리고 있는 이치이다. 52년생 정성껏 가꾼다면 알찬 결실을 맞게 된다. 64년생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오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6년생 확실하지 않다면 삼가는 것이 면액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88년생 취약한 곳은 철저히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00년생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만 할 국세이니라. 행운의 숫자 : 42, 66

巳 41년생 매사가 순조롭다. 53년생 본디의 것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이루리라. 65년생 맹목적이라면 무의미하다. 77년생 다양한 기회를 갖되 선택은 신중히 하라. 89년생 결정을 보류하고 충분히 숙고함이 합당하다. 01년생 활로를 여는 방안이 도출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1, 82

午 42년생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억지로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다. 54년생 위기관리 능력이 절실히 요구 된다. 66년생 다시 한 번 점검하자. 78년생 지금부터라도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부작용에 의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90년생 상부상조하는 관계로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 02년생 소신과 자신감은 좀 더 나은 결과로 이끈다. 행운의 숫자 : 41, 95

未 31년생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니 삼사일언하자. 43년생 우회하더라도 지장이 없으니 착실하게 임하라. 55년생 길인을 만나리라. 67년생 통일된 시각과 진중함이 형세를 굳히리라. 79년생 합목적적인 발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판시세라 할 수 있다. 91년생 기대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 : 09, 76

申 32년생 이미 물 건너 가버렸도다. 44년생 숨은 뜻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56년생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니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68년생 타인에게 비치는 겉모습을 의식할 필요는 없다. 80년생 지름길을 택해서 곧장 가로질러 가야겠다. 92년생 실행 방법이나 기교에까지 신경 쓰는 것이 용이 하도다. 행운의 숫자 : 34, 55

酉 33년생 대체적인 흐름은 양호하나 작은 걸림돌도 보인다. 45년생 효과가 미치지 않는 범위에 놓여 있느니라. 57년생 선택을 잘 하라. 69년생 일에도 시기와 조건이 있는 법이니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행하라. 81년생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편리하리라. 93년생 방심하지 말고 새어나가는 점이 없는지 낱낱이 살펴봐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3, 75

戌 34년생 숨이 가쁜 하루지만 보람은 있을 것이다. 46년생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야 성과가 더 크다. 58년생 상응하는 조건에 부합한다면 활성화 시킬 수 있게 된다. 70년생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82년생 상황을 잘 살펴 본 후에 행하자. 94년생 부단한 노력이 확실한 미래를 담보하는 지경에 이른다. 행운의 숫자 : 01, 85

亥 35년생 체면 차리려다가 심하게 꼬이는 수가 있다. 47년생 정황을 정리하고 과감하게 선회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59년생 여러 사람들과 함께 번잡하고 가득한 곳에 임하리라. 71년생 확실한 목표의식이 필요하다. 83년생 공들여 왔던 일에 대한 희소식이 들려올 것이니라. 95년생 지지 기반에 상당한 변화가 올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8, 60